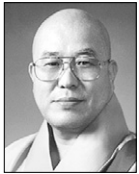


일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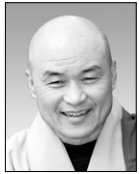
불우이웃에 쌀보시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장 현승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불우이웃돕기에 쌀(20kg) 50포대를 기증했다.



직지사청년선생동안거체행
김천 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은 2010년 1월 5일 어린이 풍안거 산사체행을 개최한다. (054)436-6084



해인사동안거봉사자모집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2010년 2월 28일까지 동안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5)934-3088



송광사구산스님 26주기 추모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2월 28일 조계총림 초대법장 구산 스님 2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대구불교방송 이사장 선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15일 열린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회에서 제4대 운영이사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심향사 다문화 템플스테이
나주 심향사 주지 원광 스님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12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참가비 무료. (061)334-2880



광원승미연합회 회장 취임
강릉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은 12월 3일 강원도 승미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 사회체육활성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대구종전북총무원장 취임
완주 용문사 주지 일허 스님은 12월 11일 대구종전북교구 4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비로자국제선원 영어 겨울특강
비로자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2010년 1월 3일까지 성인영어 담마스쿨 겨울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012-1731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 원장 선출
담교 스님은 12월 17일 제18차 임시이사회에서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원장 비전 공유하고파”

20년 만에 ‘깨달음과 역사’ 개정판낸 교육원장 현승 스님

“취임을 맞아 교육원장으로서 중도들과 내가 가진 마인드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최근 20여 년 전 자신의 저서 <깨달음과 역사>(불광출판사) 개정판을 펴냈다.

<깨달음과 역사>는 1980년대 중후반 스님이 각종 매체에 연재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현승 스님의 깊은 인문학적 소양을 오롯이 담은 책은 출판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인스님들 사이에서는 필독서로 꼽혀왔다. 절판된 지 오래지만 입소문을 탄 책은 복사본까지 만들어져 돌리려는 절집 안 스테디셀러가 됐다. 개정판에는 현승 스님의 시사칼럼이 더해져 불교적 안목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 완성도를 더했다.

스님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중·민주·통일 등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가 세던 때 작성한 글들”이라며 “불교의 깨달음을 근간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깨달음과 역사>라는 책 제목도 ‘보살(薩婆, Bodhi-sattva)’을 현승 스님의 시각에서 풀어 놓은 것이다. 스님은 “보살(Bodhi-sattva)이란 단어는 깨달음(Bodhi)과 윤행(Attva)의 합성어이다. 윤행을 중생의 삶에 관한 총체



현승 스님.

적 모습을 상징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역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보살은 ‘깨달음과 역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살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 정도에 머문 것을 볼 때, 현승 스님의 접근 방식은 파격적이다.

스님은 “현실과 연계한 고민이 초기 불교에서는 미흡했다. 상대적 세계관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고민한

것은 대승불교에서 비롯됐다”며 “<반야경> 등 대승경전에서 연기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관해 물은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승 스님은 “10바라밀 가운데 지혜(智慧)바라밀은 연기적 시각을 갖추는 것을 말하지만, 지(智)바라밀은 사회를 구체적으로 파악·이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역사·철학·사회이론·윤리 등에 있어 불교적 사고를 갖춘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교적인 시각으로 사회·역사를 접근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계종 승가교육의 방향을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으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강조했다.

“명석한 두뇌에 경학도 깊이 공부했고 자기사상과 입지가 분명한 사람”, “마음 씀이 부러우나 일을 함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외유내강한 사람”으로 평평이 나있는 현승 스님. <깨달음과 역사>는 스님의 독서와 사색·수행·실천행의 결정체이다.

한편, 이날 교육원은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승가교육 전반 총체적 점검할 터”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장 법안 스님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회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 법안 스님은 “평소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던 차에 NGO 활동을 한 자신의 경험을 중단 교육체계 발전에 활용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조계종 승가교육 정책 기초를 세우고 이를 가시화하는 싹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나온 “위원회 인사 구성에서 강원이 지나치게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스님의 발언은 장차 제8기 교육위의 활동 범위와 성격을 짐작케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구성을 두고 강원 의 목소리가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이를 극복하겠다. 다만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면면이 이어온 승가

교육을 재평가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체적인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법안 스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 부분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스님은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일선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도와 법령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위의 속도감 있는 일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세상과 소통하는 승가상’을 위해서는 승가교육이 출가자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구도자다운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성 기자

“불교 언론 내적 성장 발원”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성료



본지 임연태 부국장이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 문화부장 효탄 스님, 고홍길 국회의원(국회방통위원장), 문광부 조창희 중무실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자타불이 자비실천의 불교인됨을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함께 TV·신문·라디오·인터넷 각 부문에 걸쳐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시상됐으며, 불교언론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상이 수여됐다.

왕장은 이번 수상선정 심사평에서 “TV와 신문이 두각을 나타냈고, 시대가 변화에 따라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였다”며 “라디오부문이 다소 약세를 보여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의 임연태 부국장은 “감성으로 가는 부도발 기행” 기획기사로 신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연태 부국장은 “부도발은 제2의 설법전”이라며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대변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이은정기자·사진=백재원기자 유자호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

원주불교대학 졸업식 봉행

36사단 백호정사서 300여 사부대중 참석



적천 스님이 졸업자들에게 졸업장과 축하화환을 전달하고 있다.

원주불교대학(학장 적천·치약산 구룡사 주지)은 12월 12일 육군 36사단 군법당 백호정사에서 2009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강원영서남부 각 시행단체장, 불교대학 졸업생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적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한 졸업생들의 원력이 이어져 강원영서지역의 불심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불교대학은 해마다 늘어나는 불교대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9학년도부터 군법당을 이용해 불교대학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가 많이 소재한 강원지역에 이 대학을 졸업한 포교사들은 부족한 군포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졸업식에서 대학 동문회(회장 김효열)가 효율적인 군포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법당에 범-프로젝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나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나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나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두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싶으신 분,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서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병의원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서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